

다시 여름 방학이 오기 전에! 청년에게 듣는다
암울한 현실, 청년정당 가능한가?

주관	리셋 새로운 대한민국 네트워크	대표	김주식 010-7238-0023
대표 이메일	resetnewkorea@gmail.com	행사담당자	박선아 010-9341-0594
문서용도	토론회 공동주최 및 패널 참가 제안서		

I 제안서 목차 I

I. 주관단체 소개 page 2
 II. 토론회 기획 소개 page 6
 III. 참여하시는 방법 page 14

소속단체2) **세미나네트워크** (2015.2~)

대학생/청년이 모여서 스스로 세미나를 꾸릴 수 있는 '세미나 메니저'를 양성하는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제1기 세미나메니저들이 배출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대학과 한국 사회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 토론합니다. 여름방학에는 리셋페스티벌의 리셋원탁토론에서 '청년들이 바라는 한국사회 키워드10'을 준비합니다.



소속단체3) **민족문제연구청년모임** (2013.3~)

(1) 설립취지



"다양한 쟁점과 플랫폼으로 역사적 사실을 알려내고 있습니다."

청산되지 않은 우리의 아픈 역사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는 것이 모든 사람이 꿈꾸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그동안 40~60대 어른들을 중심으로 역사인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지만,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래의 상황과 생각을 잘 이해하고 있는 대학생, 청년들이 직접 나서 쉽고 흥미롭게 역사적 사실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 주관단체 소개



리셋, 새로운 대한민국 네트워크는

2014년 12월 창립한 대학생/청년 네트워크로서,
 답답한 우리 사회에 대한 대안은 'reset'이 될 것이라는
 동의지반을 가진 작은 모임들의 연합체입니다.

소속단체1) **리셋운동네트워크** (2015. 5~)

대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역사의
 장을 여는 활동을 합니다. 2015년 여름
 에는 <역사평화인권캠프> 대학생 기획
 단을 기획하여 청소년들과 함께 바른 역
 사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합니다.



"역사를 넘어 더 다양한 우리 사회 문제들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문제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분단, 국제정세, 민주주의, 통일, 통일 문제까지. 대학생, 청년들이 직접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토론하는 기관을 표방합니다.

"동아리와 같은 따뜻함을 넘어 전문적인 교육, 출판기관입니다."

지금까지 대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온 단체답게 대학 동아리와 같은 따뜻함은 물론 전문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출판을 위한 비영리 법인으로써 우리가 직접 연구하고 탐구한 주제들에 대한 성과로 출판과 각종 대학생 교육을 통해 알려 나가고 있습니다.

(2) 활동

"전문적이면서 대중적인 교육 사업"

제 1회 민족문제 아카데미 - 강만길, 임현영, 정동영, 정지영, 김종대 등 강연자 참여 (2013년 6~9월) - 연인원 1,600여명이 참가

교회사 친일교과서 파헤치기 전국 순회 강연 (2013년 10월 ~ 2014년 1월)

-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강연 도움
 - 부산대, 숙명여대, 홍익대, 숭실대, 한신대, 경기대, 성신여대, 서강대 등 진행

정창원 선생님과 함께하는 역사 아카데미 (2013년 12월 ~ 2014년 1월)

- 강의와 토론을 통한 남북현대사(1945~1950) 완전 정복

제 2회 친일청산 아카데미 (2014년 2월)

- 김민철, 김광진, 김민석 강연
 - 정운현 선생님과 함께하는 『친일, 청산되지 못한 미래』 북 콘서트

2014. 통일전략포럼 개최 :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한국 사회 근본 문제인 분단

-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주요 문제인 분단과 통일을 주제로 대학생, 청년이 만들어가는 통일

이라는 주제로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대학생, 청년들의 시선에서 출발하는 출판 사업"

『친일, 청산되지 못한 미래』 : 청년학생들을 위한 친일청산 100문 100답

- 대학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궁금했을만한 친일 문제에 관련된 100개의 질문을

친일문제 최고 권위자이신 정운현 선생님께서 답을 하였습니다.
 - 전국 주요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되었습니다.



(3) 도출주요 개인 선정남들

정창현 - 국민대 교양학부 겸임교수

- 서울대 국사학과, 동 대학원 박사
- 前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전문 기자
- 前 (사) 현대사 연구소 소장
- 現 민족21 편집주간
- 現 이제이건설링 대표

정운현 - 다모아 대표이사

- 고려대 언론대학원 석사
- 前 중앙일보, 대한매일 기자
- 前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 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
- 前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 前 국민TV 보도편성담당 상임이사

II. 토론회 기획 소개

◆ 행사 개요

시간 : 6월 11일 목요일 저녁 6시 ~ 저녁 9시

장소 : 신림동/노량진 고시촌 근처 (섭외중)

인원 : 학교, 학과, 나이에 관계없이 약 100명 가량의 대학생/청년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 행사 취지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못한 청년들의 삶

복지도 없고 성장도 없는 세대, 바로 지금의 청년 세대입니다. 교육도 비싼 등록금 내가면서 받아가는 데도, 취업하고 그 월급으로 집을 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결혼이나 출산, 양육, 그 무엇 하나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실업, 일자리 문제. 이미 신문 지상에 떠도는 통계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준비에 끝을 모두 바치고 있는 청년 세대의 절망감을 이해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도대체 이 청년들의 삶은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청년의제, 그저 잘 팔리는 정치상품인가?

'청년정치세력화', '청년정당'을 표방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아마 청년들의 절규를 단순한 정책 몇 가지로 포장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그런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년'이라는 의제를, 다시 살아있는 의제로 만들어서 사회를 청년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길을 가야 합니다.

정견을 막론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청년실업을 비롯한 청년들의 문제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청년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입니다. 정견을 막론하고 청년들의 힘을 모으는 것은 우리 사회 미래를 담보하는 일입니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청년들의 실질적인 힘을 모을 수 있는 정치세력화 형태로서의 '청년정당'에 대해 열어놓고 이야기해봅시다.

◆ 행사 취지 및 토론 기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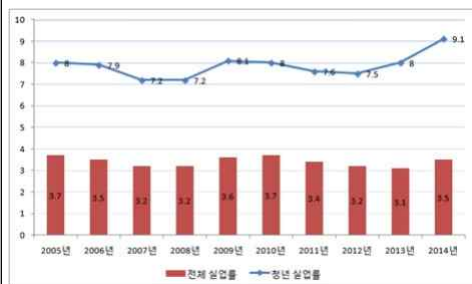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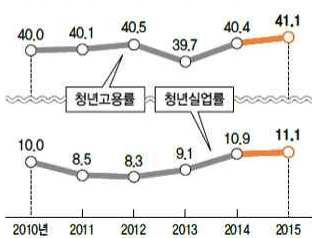
I. 청년정당의 필요성

1. 청년 실업의 심각성

[자료1]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년 실업률은 11.1%로 15년 7개월 만에 최고치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간의 격차이다. 고용동향에서의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4.6%의 두 배가 넘는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년계층의 실질 실업률은 31.8%로, 서울시 전체 실업률인 16%의 두 배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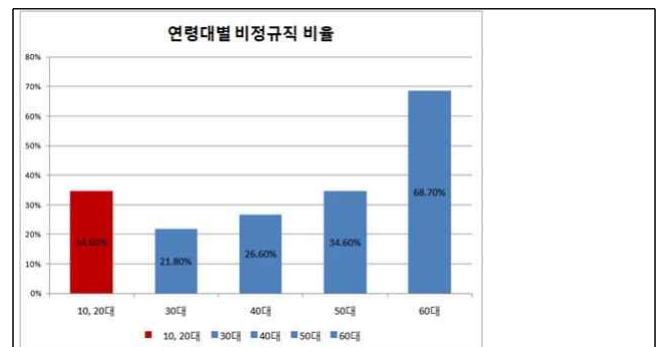
청년실업률·청년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 (단위: %, 청년층은 16~29살, 매년 2월 기준)



2. 청년 일자리의 질

청년들의 일자리의 질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34.6%로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고용노동부의 2013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3%, 고용의 질을 판단하는 근무기간 역시 7년 전엔 21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 19개월로 줄어 들었다. 또한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만엔 미만의 청년 노동자의 비율은 남성 85%, 여성 78.9%로,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3. 청년실업의 사회적, 경제적 의미

경제학자 이정전은 노동과 일의 차이를 설명한다. 그는 저서 '시장은 정의로운가'에서 "노동이란 순전히 금전을 목적으로 육체와 정신을 사용하는 행위이며, 일은 금전을 초월해서 행위자 스스로 설정한 별도의 목적을 위해서 육체와 정신을 사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장하준은 저서 '경제학 강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은 소득을 얻는 수단 이상이다.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아 붓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생리적, 심리적 복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또 일은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는 데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다.

이처럼 일자리는 단순히 돈벌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통해 가정도 꾸리고 미래의 계획도 세운다. 결혼하고 출산하고 아파트 평수도 키우고 노후도 대비하는 것이다. 일자리가 삶의 터전이자 자아실현을 위한 공간이다. 일자리가 없는 삶은 어둠 그 자체다. 그래서 영혼을 팔아서라도 일자리를 얻고 싶다는 청년들의 절규에 정부는 마땅히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재우,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a107c5b82b5548109b4b7524052b101b> 발췌)

4.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

청년실업 문제가 지속되자 정부는 2015년 부터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낮추는 제도를 말한다. 고령자의 정년은 보장되지만 인건비 부담은 완화돼 청년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 또한 정부는 청년실업의 원인 중 하나로 '대학사회의 경직성'을 지목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3월 24일 자영업 시장의 출혈경쟁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면서 청년층의 중등 등 해외진출을 제차 강조했다. (...) 이제 청년창업은 글로벌 창업으로 확대돼야 한다. 젊은이들이 개도국을 무대로 창업정신을 발휘한다면 청년실업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급 개혁 처리 이후 2차 국정 과제로 꼽히는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 중 노동 부문부터 손을 대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 주도의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라 노정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II. 청년정당은 가능한가

1. 청년 정치세력화 모색 1

(...)

3. [청년 정치세력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제안 취지]

○ 청년의 권리와 행복 증진을 위해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자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다르지만 공통의 문제의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정책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다. 는 것입니다.

○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항상 청년들은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뒷전일까요?

○ 문제는 정치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거 여성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청년들이 힘을 결집해 정치세력화를 이뤄낼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가운데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정부나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지 않는 까닭입니다.

○ 청년 정치세력화는 청년세대의 정치참여 확대 선거연령 하향 운동 청년공천할당제 등 제도적 개정 및 투표를 독려와 같이 청년세대의 정치적 관심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 청년들의 삶과 직결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중지를 모으고 하나의 큰 세력으로써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모든 행동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 'I'm going to make you an offer you can't refuse'

대부의 명대사입니다. 영화에서처럼 이런 비민주적인 방식은 절대 안되겠지만 청년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의 목소리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이 될 것입니다.

○ 구체적인 활동은 여러분과 의논하면서 차차 뚜렷해질 것입니다. 이날 한국청년유권자연맹에서는 먼저 청년정치세력화라는 큰 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경청하고 싶습니다.

(...)

2) 치맥 토크
주제: 청년 정치세력화에 대한 참가자의 자유로운 생각
ex) 청년정치세력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전략은?
ex) 청년단체를 이끌면서 느꼈던 한계점은?
ex) 청년이 정치적 약자인 가장 큰 이유는?
- 테이블별로 이야기를 나누고 자유롭게 의견을 소개합니다.

(...)

4) [청년 정치세력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가칭) 제안]
-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정치관계법 개정 제안
- 향후 활동 논의

- 한국청년유권자연맹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7rMU&articleno=11

2. 청년 정치세력화 모색 2

24일 오후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당원 1만명을 시작으로 이 땅의 2040세대를 대변하는 청년정당 (가칭)'제3신당'이 창당대회가 성황리 개최됐다.

"제3신당"은 비정규직, 청년 실업, 사교육 망국, 빈부양극화, 내 집 걱정, 육아문제, 저출산 고령화, 복지 사각지대... 대한민국 기존 정당들이 만들어놓은 현 우리의 모습, 사회의 희망 청춘 20대는 아프고, 30대는 절망적이고, 40대는 지쳤다. 국민을 위한 새로운 공약인 듯 결국 기존 지배층의 흐름에 부합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치는 신물 난다. 완전하게 새로운 것. 우리 사회는 그것을 갈망한다. 이에 대한민국 2040을 대변하는 제 3 신당이 창당대회를 개최한다.여의도를 점령하라! 대한민국은 부른다!

제 3 신당은 2040세대가 중심이 되고, 사회 각 계층을 고루 대변하는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된 새 시민 정당 입니다.창당 현재 총 당원 1만 여명 중,기존 정당 가입 경험 전무.20~40대가 70 ~ 80 %,장애인 당원 20%,다문화가정 당원 5 ~ 10% 제 3 신당은 이러한 사람들이 새롭게 만드는 새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

전체 유권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2040 세대는 현 정권에서 가장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2040 세대 여론 조사 결과, 77.7%가 "나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했다. 이제는 직접 2040 세대가 일어셔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제 3 신당은 총 당원 중 2040세대가 80%로서 이들의 주도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까지 아울러 대한민국 기존 정당에 맞서는 새로운 판도를 제시한다.

청년 정당 제 3 신당은 올바른 생각을 지지하며 실천합니다.
국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회의 조화로운 소통을 절제 있게 풀어내는 것. 그것이 기본이다. 제 3 신당은 여타 정당이 외면하였던 '기부부터' 확실하게 실천할 것이다.

김두관 '신념' /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
박세일 '열정' / 창의적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 고용, 복지 안정화
심대평 '조화' / 독단이 아닌 사회 각 세력의 조화롭게 이념 싸움에서 탈피
안철수 '소통' /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자와 약자 사이의 소통
윤여준 '절제' / 말과 행동의 절제가 바탕이 된 권위와 신뢰

제 3 신당은 위 5가지 기본을 바탕으로 다음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인 부정부패를 원천 차단할 것이다. 그 다음, 우리 사회가 알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 하는 가장 원천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새 토양에 건강한 새 뿌리를 심는 것이다.

- '제3신당'출범,2040세대를 대변하는 청년정당 !
<http://blog.daum.net/eknews/8464350>

3. 청년 정치세력화 모색 3

'청춘콘서트' 희망서포터즈가 중심이 된 '청년희망플랜'이 지난 2월21일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6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88만 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교수 200여명이 참석한 이 날 행사에서, '청년희망플랜'은 대한민국 최초의 청년정당으로 나설 것을 밝혔습니다.

솔직히 이 소식을 접하고 정치불로거로 관심과 우려, 그리고 걱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정당으로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겁없는 청년들은 정당등록까지 마쳤습니다.

2월13일 선관위에 등록된 '청년희망플랜' 출제:청년희망플랜

선관위에 정당등록까지 마친 '청년희망플랜'이 도대체 어떤 정당이고 어떤 성향인지 살펴봤습니다.

▶ 안철수 교수와의 관계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점입니다. 안철수 교수의 지지율이 높아갈수록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조직과 정치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년희망플랜'은 정당으로 조직되면서 안철수 교수의 참여를 비롯한 연결고리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안철수 교수의 '청춘콘서트'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당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청년희망플랜'(이하 청년당)은 '청춘콘서트'를 통해 젊은이들이 모여 정당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아 설립된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만명의 당원을 확보하고 정당등록을 3%로 비례대표 의원을 내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 정당 설립 등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가?
'청년당'은 초기 발기인 235명들의 회비로 일단은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비용 등 최소한의 비용만 실시 일반 모인 회비로 충당하고, 지금 '청년당'을 위해 뛰는 사람들은 모두가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대부분 온라인으로 홍보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지 않고 있어, 일단 시작과 동시에 '청년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일단 구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

저는 '청년당'을 보면서 태생적으로 지닌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온라인으로는 약한 대한민국 정당 구조
현재 청년당은 온라인 정당을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오프라인 조직은 필수적입니다.(현재까지) 그렇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온라인으로만 청년당원을 모집해서는 4.11총선 전까지 모집해야 할 최소한의 당원 5,000명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거리로 나가 직접 당원 서명을 받으면 뛰어다녀야 하는데, 이것이 서울 한 지역에서 만 될 수 없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 같지만, 오프라인을 무시할 수 없기에 어떻게 이것을 융화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정당 가입을 꺼리는 한국 풍토
한국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과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진보를 내세우는 사람도 막상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등에 직접 당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1인1정당이 보편화했지만, 한국에서는 어렵습니다. 이런 한국의 풍토에서 특히 젊은이들이 과민 담비를 내는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냐는 의문점도 들고, 그 숫자가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게 됩니다.

■ 중구난방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청년당은 '청년 자립, 99%의 행복, Change for Korea!'라는 목표를 가지고 창당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발기인들이 2030세대에게 이들은 등록금이나 청년 취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이 청년층에만 국한된 정책을 내걸거나, 아이디어 차원뿐인 정책이나 현실성 없는 정책을 쏟아낸다면 그저 치기 어린 젊은이들의 모일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발목적인 검토나 철저한 자료 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정당으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 기존 정치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방법은?
제가 '청년당'을 보면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정치인들과의 관계입니다. 청년당은 말 그대로 정치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들을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생길 것이고, 기존 정당과 어떤 정치적 협상을 할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기존 정당과의 싸움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청년당'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보수로 뛰어다니는 저들에게 사회는 '취업이나 하지, 어린 것들이 무얼 안다고', '정치가 쉬운 줄 아니?'라는 조롱 섞인 비판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

아이엠펙터 - 안철수 때문에 정치에 나선 '청년당'에 보내는 경고
<http://impeter.tistory.com/1769>

◆ 프로그램

6월1 1일	연사님	성격	주제
6:00 pm	주최 측	사회	[소개] 제대로 된 청년 정치를 말한다.
6:10 p.m	고원 교수 박종훈 기자	발제	청년! 붕괴,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이유는? - [정치] 청년세대가 일으키는 정치적 균열 분석 - [경제] 지상최대의 경제사기극, 세대 전쟁
6:30 p.m	패널	토론1	청년정당이 한국 사회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청년'의제가 답을 것은 무엇인지
	패널	토론2	청년정당의 가능성과 전망 - 청년정치세력화는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미래참가단	질의응답	미래참가단 질의응답, 토론

III. 참여하시는 방법

A. 공동주최

취지에 동의하는 청년학생단체, 국회의원실, 언론사 등

요청사항

- 1) 명의후원 *****
 - 명의후원으로써 이 문제에 관해 많은 청년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데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 명의후원은 행사 이틀 전(6월 9일)까지만 받습니다.
 - 공동주최 단위들은 홍보물에 인쇄될 예정입니다.
- 2) 홍보
 - 소속 회원 및 청년들에게 행사를 홍보하고 참가자를 모집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B. 토론패널

패널 신청 자격 : 한국사회 대안을 이야기하고 싶은 한국의 청년학생단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패널 신청 : ~ 6월 3일 자정까지 참여 의사 전달

발제문 제출 : ~ 6월 5일 자정까지 아래 양식에 맞게 A4 1페이지 분량으로 주관단체 이메일(resetnewkorea@gmail.com)로 제출. 행사당일 자료집 및 미래참가단에 사전 공유 됨.

양식 *****

1.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사회의 위기는 어떤 것인가?
2. '청년'의제가 답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청년'정치세력화, 특히 청년정당 건설은 유의미한가/가능한가/어떻게 가능한가?

* 토론패널 신청자가 4팀이 넘을 경우 발제요지가 유사한 단체를 묶어 토론할 수 있음

C. 미래참가단

참가자격 : 한국의 20~30대 청년 누구나

하는 일 :

- 1) 토론회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참여
- 2) 토론회 평가 설문 작성

참가비 : 5000원 (자료집 제공)

신청 방법 : 이름/연락처/신청동기

- 1) 구글박스 신청
 - 혹은 2) 문자 신청 (010-9341-0594)
- 신청순 100명 / 6월 9일까지 신청